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노초롱 대덕여자고등학교 교사(제1저자)

김중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2026.6.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결론

I. 서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아 보기 위한 노력으로 8개 학교에서 48명의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을 입학시켰다.¹⁾ 전라남도에서도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유학생의 입학에 허가하고 있다.²⁾ 2025년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에 따르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436명으로 2024년의 214명(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조인식(2026)에서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과 ‘유학생이 학교에서 학

-
- 1) 이도은(2024.03.11.), 국내 첫 ‘고교 외국인 유학생’··‘지역 소멸’ 대응 안간힘, MBC뉴스,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8590_36523.html.
 - 2) 조태훈(2026.03.04.),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유학생 ‘첫걸음’ 지원, 남도일보,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029>.

습자이자 생활인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 미성년 유학생의 인권·안전 보장, 생활 관리, 교과 이수, 체류 자격 등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교차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조인식(2026)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2026년에는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대부분 거절되었음을 언급하며, 미성년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입생 충원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들의 관리 체계가 미흡함, 졸업 후 체류 비자 근거 없음 등을 우려할 점으로 꼽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 구축, 비자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국내에 취업, 정주하지 못하며, 유학생의 모국에서 한국 고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추후 해외 유학생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³⁾ 전남미래국제고는 이미 선발한 외국인 신입생 45명 전원이 2월까지 비자를 못 받아 이주 배경 학생 7명으로만 문을 열게 되어⁴⁾ 제도·행정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으로 전이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⁵⁾ 부산에서는 K팝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K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방침이었으나⁶⁾ 제대로 된 정책적 준비 미흡으로 최종 무산되었다.⁷⁾

3) 김정호(2026.03.16.), “똑같이 배웠는데...” 비자 때문에 한국 떠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민일보,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9614>.

4) 김민기(2026.03.17.), 직업계고 외국인 신입생, 올해 70%가 비자 못 받았다, 조선일보,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6/03/17/I4GNUK36PBEFJJ7HNFC5PDJRP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5) 여운창(2026.02.24.), 전남미래국제고 ‘반쪽 개교’ 불과피...유학생 45명 비자 불허, 연합뉴스,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4127400054?section=search>.

6) 김한수(2024.01.07.), 향만물류·금융·관광... ‘부산’다운 특성화고 세운다, 부산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미연(2026), 김효숙(2025), 류루루·김정섭·김은지 외(2023), 주월랑·강병현(2022)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학업 수행, 문화 적응, 차별 경험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며, 유학생이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복합적인 적응 과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능력은 학업 수행이나 학교 생활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과 또래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유학생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수정·윤혜미(2013)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황윤미·방명애·김혜인(2018)은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일반 가정 학생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낮고 정서행동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이주 배경이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주연·배선우(2020)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박선우·정제영(2022)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학업 적응,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교생활 변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권보근·장인실(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출신국과 한국의 교육과정 및 학교 규칙의 차이로 인해 생활과

보, 검색일자 2026.03.29., 사이트 주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10718145603437>.

7) 유태경(2026.06.10.), [부산] 법적근거도 없던 'K-팝 고교' 최종 무산, 광주 MBC, 검색일자 2026.07.15., 사이트 주소 <https://kjmbc.co.kr/NewsArticle/1522597>.

학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부모·교사·친구와의 관계 형성 역시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이주 경험은 청소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현숙(2024)은 조선족·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이 이주 이후의 사회적·문화적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언어 습득이나 학업 수행의 문제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자아에 대한 인식과 관계 형성,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이러한 이주 배경 청소년과 언어적 어려움, 학습 환경의 차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정체성의 변화 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의 이주나 가족 재결합 등에 따라 학교에 편입한 경우와 달리, 교육과 진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의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며,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최유진(2019)은 이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유학을 결정하고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생활하며, 대학 진학을 주요 목표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이성령·오영훈(2022)은 외국인 학생들이 의사소통 문제, 학업 결손, 학교 부적응,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며 정체성 혼란과 진로 불안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강미령·양명희(2020)는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달도, 학습 동기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차별 경험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노초롱·김중수(2024)는 청소년기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심해지게 되는, 한국어 표현 능력과 정서 발달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 청소년 유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윤은숙(2025), 박정하(2025), 최이진(2018) 등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소속감 문제, 귀국 후 재적응 문제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인 청소년 유학생들의 이러한 적응 문제를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경우, 학교 적응이 새로운 학교의 규칙이나 언어에 익숙해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구성하고 자기의 모습을 조정하는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은 한국어 능력이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업, 교사 및 또래 관계, 학교 공동체에서의 소속감,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적응’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교의 제도와 학업 환경에 익숙해지는 결과적 상태로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적·문화적 환경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내 자신의 위치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자기 이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업과 관계, 소속감 및 자기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수용 정책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곧바로 모색하게 된다면 그들의 경험 세계를 한국인 교사 혹은 한국인 정책 담당자의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인 교사 혹은 한국인 정책 담당자는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적응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의 접근은 피상적이거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안 마련에 앞서, ‘미성년자면서 이른 시기에 인생에서 큰 결정에 해당하는 한국 유학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학교에 적응해야만 하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며 어떤 정서적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맞는 지원을 하려면 그들만의 독자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향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생 중심적인 토대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산 소재의 K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며 특히 심층 면담을 통한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본래는 연구자 중 한 명이 해당 과목 강의 시작 전 학생의 상태를 살피고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 내용과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 수업 후 학생의 상태를 살펴 제시된 수업 내용과 학습 경험이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경험이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해당 과목 강의 준비와 분리하여 학생들의 적응 경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가 6명으로 매우 적은 경우에 질적 연구의 일반화의 문제에 대해 Seidman(2009: 117)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양적 연구에서의 일반화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부분은 첫째,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여러 면담 대상자가 가진 공통적인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 연구의 결과물을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의 유사성을 찾거나 공감하는 것이다.

조성남·이현주·주영주 외(2011: 285)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강도 높은 탐구 과정 없이는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연구 방법이며, 그 해답은 양적 연구로는 얻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

구는 표본 조사를 통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깊이 있는 묘사를 통한 전이성을 추구한다(박중원, 2011: 3). 또한 고미영(2013)에 따르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하여 양적인 표본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서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적 이해이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2. 연구 대상

K고등학교는 2012년 학칙 개정에 의해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해 오고 있다.⁸⁾ 면담을 실시했던 2024년 당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등의 변동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이며 연구 대상은 2024학년 2학기에 ‘한국문학의이해’ 과목을 수강 중인 6명의 학생이다. 연구자 중 한 명이 해당 과목을 강의하게 됨으로써 라포(Rapport) 형성이 가능한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중 한 명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의 특수 관계에 따른 편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첫째, 학생들은 학교의 특정 교사, 특정 학생, 특정 사건을 언급할 때에는 연구자가 학교 관계자임을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아꼈으나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면담이 진행되자 오히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실에 감사하며 솔직한 태도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학생들의 응답을 해석하려 할 때 다른 한 명의 연구

8) 제44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본교는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K고등학교 학칙)

자는 그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토론하며 해석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학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많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을 학기제를 채택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유학 오기 위해 준비한 기간 때문에 늦게 입학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한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일도 많고 자국의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인 학생도 많았다.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이름	국적	나이 (만)	학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토픽 급수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어 실력
디마스	네팔	20	3학년	2.5년	2.5년	1급	학교 생활에 큰 문제 없음
릴리	네팔	19	3학년	2.5년	2.5년	1급	전혀 못함
노아	카자흐스탄	19	3학년	3년	3년	2급	학교 생활에 큰 문제 없음
아린	페루	19	3학년	2년 이상	2년 이상	2급	학교 밖 생활에 큰 문제 없음
자밀라	카자흐스탄	16	2학년	1.5년	2년	급수 없음	학교 생활에 큰 문제 없음
니콜라이	인도네시아	18	2학년	1년	1년	급수 없음	학교 생활에 큰 문제 없음

디마스: 이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K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움을 주거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국제부 소속 학생이다.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한국 어디를 가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쾌활한 성격으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교사와의 관계,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모두 좋다. 문제를 겪는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처럼 해결책을 제시하

는 편이다. 어떠한 일의 성취가 자기 기준보다 못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열정적인 학생이다. 그럼에도 학점 평점이 2.3이나 3.4 정도라 최상위권 대학 입학은 어려우며, 그로 인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대학에 가서 적절한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을 하는 등 대학 입학 이후에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릴리: 디마스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좋은 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며 조금은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고등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부모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생긴 소망이다. 부모님과 매일 통화를 하며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걱정할 이야기는 혼자 묻는 편이다. 한국에 와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마이너’가 된 느낌을 받으며 지낸다.

노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는 수다쟁이라고 알려진 학생이다. 수업 시간에 조용히 수업에 참여하다가 수업 후반에는 갑자기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도 없고 사이가 나쁜 친구도 없는 학생이다.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보류하며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고 타인이 어떻게 보는가가 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린: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타인을 불신하여 자신의 약한 모습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한국에는 ‘파티 문화’ 같은 것이 없어 아쉬움이 많으며 이성에 관심이 많아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성에 대한 것으로 화제

를 돌리는데 그것을 불편해 하는 친구들도 있다. 모국에서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으나 한국에서 학업 성취가 많이 부족하며 교내 말하기 대회 등의 기회가 와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된다. 분위기를 살리기를 좋아하지만 문화 차이로 인해 유머 코드가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대학에 가면 생활도 더 자유로워지고 성격이 맞는 친구를 만나 신나게 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대학 문제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화제로 대화한다.

자밀라: 자밀라는 고려인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음에도 오히려 한국에 와서는 외국인으로 규정당하는 것에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다. 김진혁(2016: 59)에서는 고려인의 한국어 보존이 미약하다고 하였는데 자밀라 역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다. 하지만 한복, 돌잡이, 음식 등 일정 문화는 한국인과 공유하고 있다. 디마스와 마찬가지로 국제부 소속 학생이다. 새로운 사람이 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성격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교사, 또래 사이에 인간 관계가 좋고 가치관이 분명하고 신념도 있어서 학업 성취도도 높은 학생이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본인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압박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족과는 가끔 연락하는 편이다.

니콜라이: 아주 진지한 성격이고 친구들도 자신을 ‘재미없다’라고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진지하고 복잡한 성격이라 생각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불안정한(unstable) 상태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대학에 가서 적절한 나이에 일을 시

작하고, 빨리 부모님과 가족을 뵙고 싶어한다. 가족과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통화하며 주로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 중인 ‘한국문학의이해’ 과목의 구성원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 2학년 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다. 연구자가 평소 학교 생활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생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별도의 학교 적응 척도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아니다. 반면 3학년 참여자들은 당시 일부 학생들이 대학에서 미리 수업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학교 밖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계속 학교에 남아 있던 외국인 학생들이었으며, 이들 전원이 ‘한국문학의이해’ 과목을 수강하였다.

즉, 2학년 참여자들은 비교적 학교 적응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외국인 유학생보다 적응 경험이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또한 3학년 참여자들은 대학 선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3학년 외국인 유학생들과 학교생활 및 학업 경험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자 구성의 특성은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학교 적응 수준을 별도의 척도나 면담을 통해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6명의 적응 수준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들 6명을 K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국적, 연령,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학업 성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사례들을 통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미와 양상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 절차

연구 대상을 선정한 다음,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원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인적 사항은 설문 형식의 구글폼을 주어 작성하게 하였고 내밀한 생각은 면담을 하게 하여 살펴보았다.

면담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영어로 모든 면담이 진행되었다. 1차 면담에서는 이들이 영어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 못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서 질문을 문장으로 적어서 예시 답변과 함께 제공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예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1차 면담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클로바노트 앱으로 전사한 후, 전사 자료를 연구자가 검토하여 인식된 문장 내용을 학생의 답변 맥락에 맞게 바로잡았다.

검토한 전사 자료를 챗GPT 5.2 Thinking 버전으로 번역하고, 번역 내용을 연구자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2차 면담에서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1차 면담 자료를 토대로 2차 면담의 추가 질문도 학생 별로 준비하였다. 2차 면담 자료도 1차 면담처럼 녹음, 전사, 검토, 번역,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면담 내용을 NVivo 15 버전으로 코딩한 후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두 명의 연구자가 범주화 결과를 교차로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한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반복적 읽기를 하면서 범주 목록을 만들고 다른 연구자 역시 반복적 읽기를 하면서 그 범주에 따라 면담 내용을 코딩하거나 범주 목록을 추가·삭제·조정하였다. 범주화된 내용에 의문이나 의견 차이가 있으면 두 연구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생각을 발표

하는 내용,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친구에 대해 작성한 작문 과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객관적인 상벌 사실, 녹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연구자와 학생 간의 대화 등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보완하고 검증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의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주로 ‘연구 참여자’로 불린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A, B 등 익명의 기호로 처리하기보다는 가명을 사용하는 관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를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2〉 1차 면담 정보

학생	면담 일시	면담 시간
디마스	8월 22일 11시	61분
릴리	8월 23일 10시	64분
노아	8월 22일 10시	41분
아린	8월 29일 10시	55분
자말라	8월 29일 11시 10분	63분
니콜라이	8월 30일 10시	61분

1차 면담은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40분~60분 내외로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자기 자신에 초점을 둔 질문에 처음에는 어색해하였으나 곧 적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 2차 면담 정보

학생	면담 일시	면담 시간
디마스	11월 22일 9시	51분

릴리	11월 22일 11시	44분
노아	11월 22일 4시 30분	72분
아린	11월 28일 9시	82분
자밀라	11월 28일 4시	41분
니콜라이	11월 28일 1시 30분	68분

2차 면담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별로 40분~80분 내외의 응답으로 정보가 포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1차 면담과 달리 2차 면담에서는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길게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국에 대한 생각

〈표 4〉 한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한국의 좋은 점	나에게 특별한 곳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
	생활 수준이 높은 곳
	날씨와 계절이 좋음
	여행하기 좋은 곳
	언어가 예뻐
	한국 문화와 음식, 사람이 좋음
한국의 나쁜 점	예상과 달리 한국은 영어가 안 통함

면담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부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린 나이에 혼자 와서 2년을 보낸 곳이므로 자신에게 특별한 곳이며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응답을 보였다. 한국은 생활 수준이 높고 자신의 모국에 비해서 환경 오염이 덜하고 날씨와 계절이 좋아 살기 좋으며, 여행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편의점 등의 편의 시설이 마음에 들고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날씨가 좋다는 응답도 많았는데 특히 따뜻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겨울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은 언어가 예쁘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린: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제 한국 생활에서 제일 행복한 부분이에요.⁹⁾

다만 일부 연구 참여자는 한국이 발전된 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학 이전에 형성한 한국의 언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니콜라이: 한국 생활은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다들 영어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영어로 말하면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9) 원문은 “I was very happy about that and I like Korean culture and Korean food and Korean peoples. So that's the happiest part of my Korean life.”이며 이하 면담 내용은 모두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분량 관계상 이하 원문은 생략하였다.

〈표 5〉 모국에 대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멋진 자연
	맛있는 음식
	좋은 삶의 질
	서로 돕는 공동체
	직접적인 감정 표현과 열린 분위기
중립적인 생각	정체되었지만 희망이 있음
	안전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음
부정적인 생각	모국을 안 좋아함
	최근 살기 힘들어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교육에 문제 있음
	정치에 문제 있음
	일자리에 문제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연이 멋지고 음식이 맛있으며 삶의 질이 멋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열린 분위기를 강점으로 응답하였다.

(3) 릴리: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서로 돕고, 공동체처럼 살아요. 종교도 다르고 카스트 같은 차이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돕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예요.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지만 희망이 있고, 안전한 곳과 아닌 곳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이 자신의 모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발전되어 있고,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유

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노아: 고향의 어떤 지역들은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곳,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감시도 많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려고 해요. 반면에 제 도시의 어떤 지역은 정부 같은 데서 지켜본다는 느낌이 덜해서, 사람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반면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모국을 안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고, 최근에는 모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응답하기도 했으며, 모국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교육, 정치, 일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5) 아린: 제 나라는 좋은 곳이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패도 많아요. 교육도 부패했구요. 심지어 암시장 같은 데서는 학위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은 결국 모국의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한국에 와서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끝까지 적응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 학교 생활에서 적응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 생활

1) 한국의 학교

〈표 6〉 한국의 학교에 대한 생각

한국의 학교	긍정적인 면	좋은 시설
		좋은 교육 시스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부정적인 면	즐기지 못하는 학교 문화
		학교 밖 생활 없음
		한국 학생 중심의 학교 시스템 불만족
모국의 학교	교육에 문제 있음	
	배운 것이 거의 없음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음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는 좋은 시설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시설이 자기 모국 학교의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여러 특별실이 학교에 있어서 좋은 시설에 깜짝 놀랐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학습 내용을 강의식으로 전달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아린: 학교 시설은 제 나라보다 확실히 좋아요. 제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러나 공부에만 집중하여 별다른 즐길 거리가 없어 즐기지 못하는 학교 문화, 한국 학생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학교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과 교사-학생 간의 언어 차이 해결,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교육 과정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와서는 문화 차이보다는 교육 시스템 차이를 더 크게 느꼈고 교육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삶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리고 24시간 책만 읽고 있는 느낌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들이 학교 밖에 자유롭게 나가도록 할 수가 없고, 교사 등 보호자 동행으로만 나갈 수 있거나 외출 허락을 해 주지 않아 학교 밖의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생과 같은 성인 유학생이 겪는 현실과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7) 자밀라: 우리가 여기서 소수(minority)라는 점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국제학생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요. 이게 꼭 선생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학교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 (중략) ... 학교 교육과정은 한국 학생들 쪽에 더 맞춰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학년 한국 학생 시스템이 우리랑 좀 다르고, 트랙 시스템도 새로 바뀌어서 우리 선택지가 제한되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 중심이라고 느껴요.

이에 반해 모국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이 거의 없고,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내용의 응답을 하였다.

(8) 디마스: 저는 좋다고는 말 못 하겠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제가 배운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어서, 그 영

향도 있었을 거예요.

2) 학교에서 나의 역할

〈표 7〉 한국과 모국의 학교에서의 역할

한국 학교에서의 역할	주변인 역할
	국제 학생을 챙기는 역할
모국 학교에서의 역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
	학교와 무리에서 중심 역할

한국 학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주변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국제 학생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학교에서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라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일을 하는 국제부에 소속되지 못하면 한국의 학교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주변인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9) 노아: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기여하기도 하고, 또 동아리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 (10)처럼 국제 학생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학생들도 유학생으로서의 강점을 살려서 한국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학생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10) 자밀라: 저는 국제부에 소속돼 있어서 가끔 그룹 공지 같은 것도 하고요. 국제 학생 공동체에서 뭔가 기여하는 일이 많다고 느껴요.

모국의 학교에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학교와 무리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국에서 학급 반장, 학교 회장 등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 학교에서는 중심 역할을 한국인 학생들이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그러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학교에서 주변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릴리: 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도와주는 것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에도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제 학교에서는 유치부 학생들 까지도 저를 알 정도로, 저는 거의 모든 스포츠와 활동에 참여했거든요. 제 나라에서는 교육만큼이나 스포츠나 다른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춤을 정말 좋아해서, 춤으로도 유명했고 스포츠도 했어요.

모국에서는 주인공 같은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주변인처럼 느끼고 있는다는 질문에 (10)처럼 한국의 학교에서 일정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변한 학생들마저도 “그렇다”고 대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자신이 주변인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 활동 참여

〈표 8〉 한국과 모국에서 학교 활동 참여도

한국 학교 활동 참여	그럭저럭 참여 중
	활동적으로 참여함
모국 학교 활동 참여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함
	음악, 스포츠, 댄스 활동 참여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하여 그럭저럭 참여중이라고 답하거나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 학교 활동에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과 상호작용에 열심히 참여할 뿐 학생간의 상호작용에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팀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는 한국에 오기 전보다 학교 활동 참여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2) 니콜라이: 활동적인 학생이요. 저는 참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학생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요.

(13) 자밀라: 제가 엄청 ‘활동적인 학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여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 3학기째인데, 지난 두 학기랑 이번 학기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평균 정도?

그에 비해 모국에서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고, 음악, 스포츠, 댄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학업 활동만큼 다른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국의 분위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음악, 스포츠, 댄스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러한 활동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기회가 적어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4) 디마스: 제 나라에서 음악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했고, 교회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앙상블에서 아이들 관리하고, 연습 관리하고, 그런 걸요.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음악 쪽이었고, 그리고 축구도 했어요.

4) 학업

〈표 9〉 한국에서의 학업 수행

한국에서의 학업	힘들고 어려움	어려운 수업
		학업 스트레스
		낮은 성적에 불만족, 속상함
	적극적 대응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시스템
		경쟁적 분위기로 도움 요청이 힘들
	성취 기대 조정	학업 흥미 잃음 및 포기
		고등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님
모국의 학업	높은 성적	
	쉬운 학습 내용	
	열심히 공부했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음	
	똑똑하게 타고 난 상위권이라는 자기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학업 수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업을 어렵다고 생각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며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속상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한국인 학생에 비해서 학업 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15) 노아: 과제나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요.

(16) 아린: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선생님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취소하는 게 좋겠다, 좋은 점수 못 받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그래도 들어야 해요.”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웠고 한국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고, 잘 못 따라가니까 좀 속상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17)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18)처럼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거나 높은 성취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히려 학업 부담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17) 자밀라: 저는 여기 오고 나서 학업 방식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알려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받아 적어라.”, “다 쓸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 외워.” 하고 외우는지 체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스스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선생님들은 강의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에요.

(18) 디마스: 이걸 선생님한테만 하는 말인데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K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아마 학업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이들은 이들은 모국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으며 학습 내용이 쉬웠

다고 응답하였다. 모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높게 나왔다. 모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한국에 와서 한국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모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는 자신이 똑똑하게 타고난 상위권 학생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 니콜라이: 저도 이걸 말하는 게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나는 타고나길 똑똑한 학생이고, 상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타고나길 똑똑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그걸 유지하는 건 결국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고향에 있을 때 저는 정말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모국에서보다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 요인으로는 학생 모국의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 사이의 연결성 부족, 학생 모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학구열,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한국 학생에 비해서 자신이 학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20) 노아: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해도 평균, 혹은 평균보다 조금 좋은 성적은 나올 때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새벽 2~3시까지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여름방학 같은 때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쓰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는구나.’ 싫어서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요.

5) 교사

〈표 10〉 한국에서 교사와의 관계

한국에서	친밀감	선생님과 관계 좋음
		일부 선생님과 친밀함
	거리감	국제 학생 배려, 이해 부족
		모국에서보다 선생님과 안 친함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조언을 구하고 싶음
		엄격한 피드백과 동기를 낮추는 말투나 표현
모국에서	긍정적 인식	인정받는 학생
		선생님과 편하고 좋은 관계
		배려 많고 친절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부정적 인식	선생님과 가깝지 않음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들도 일부 선생님과과의 관계는 친밀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학교에 있는 일부 교사는 국제 학생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면서도 다른 교사들은 그러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로 교사의 엄격한 피드백, 학업 동기를 낮추는 말투나 표현을 꼽았다.

(21) 아린: 전반적으로는 페루보다 선생님들이 더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진짜 무서웠어요. J 선생님이요. 저는 J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 자밀라: 음... 약간 인종차별적인(racist)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특히 새로 온 영어 선생님 있잖아요, 아세요? 그 선생님을, 아무튼, 국제 학생 신입생 몇 명을 그 선생님 수업에 넣었는데, 그 선생님이 영어 수업에서 한국어로만 말했대요. 네, 저는 그게 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희망이나 선생님께 자신의 학업,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희망을 보이기도 하였다.

(23) 아린: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선생님들이랑 더 연결되고 싶어요. 더 가까워져서 조언도 구하고 싶고요.

연구 참여자에게 모국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비교해서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모국에서 자신은 모국의 선생님께 인정받았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선생님과 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모국의 선생님에 대해서 배려가 많고 친절하며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4) 릴리: 제 나라에서는 선생님들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고요. 왜냐하면 제 나라 문화에서는 선생님들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든 “이게 어렵다”, “수업이 우리랑 잘 안 맞는다” 같은 걸 그냥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모국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의 모국에서 믿는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이었다. 종교적인 문제로 모국의 학교에서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 모국의 학교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은 한국에서의 교사와 관계가 모국에서의 교사와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25) 디마스: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위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심하게 말하기도 했고요. 학생을 책상이나 걸모습 같은 걸로 판단하고, 막 그런 식으로요. 저한테도 실제로 그랬어요.

6) 또래 집단

〈표 11〉 한국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

관계성	서로를 잘 몰랐음
	자기 문제를 공유 못 함
	소수의 친구와 친하게 지냄
변화	관계에 무더짐
	사교적이고 진지해짐
	친구의 소중함 깨달음
	누구든 가볍게 인사하는 성격으로 변함
국제 학생 친구	관계 좋음
	갈등이 있음
	국제 학생 친구조차 없음
	국제 학생 친구도 사귀려면 노력이 필요함
	점차 좋아지고 있는 국제 학생과의 교우관계

불만족	부족한 상호작용
	친구관계, 사회 생활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이 없음
바람	우정이 유지되기를 바람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음
	소수의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한국인 친구	적거나 없음
	친해지고 싶음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학생들끼리도 서로에 대해 잘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자기 문제를 친구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며 소수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26) 아린: 솔직히 애들이 저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그대로 받아주거나, 조금 봐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케이, 나도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너희도 나 좀 받아 줘.”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저니까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말을 걸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수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거나 관계 형성에 이전보다 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참여자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관계 형성 시도와 기대의 조정이 함께 나타

났음을 보여 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관계에 무더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거나 사교적이고 진지한 성격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누구든 가볍게 인사하는 성격으로 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인 자신에 대해 호감과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중심의 위치에 서서 또래 집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에 바쁘고 외국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신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거나 영어로 소통하는 귀찮음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안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고 학교 시스템은 한국인 학생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못쳐서 돕지 않으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기므로 표면적으로는 못쳐 있고 유학생끼리 서로 돕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 그에 관해서는 외로움이나 희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하나의 틀로 이들에게 관계 형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도움의 방안 역시 일률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27) 자밀라: 그리고 친구 관계는, 저는 국제 학생들보다는 한국 학생들과 친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중략)… 저는 한국 학생들이랑은 아직 별로 안 친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략)… 저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 조상이 한국인이기도 해서 민족적으로도 비슷하니까 더 잘 이해해 줄 줄 알았고, 친구도 더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

지 않았어요. …(중략)… 한국 친구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고, 어떤 애들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진짜 가까워서 비밀을 공유한다거나…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의 삶 전반을 깊게 나누는 사이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저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얘기 정도만 해요. ‘날씨 어때?’, ‘중간고사 어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사교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고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가볍게 인사는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교우 관계를 맺기 위한 연구 참여자들의 처절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8) 디마스: 지금은 그냥 누구든 가볍게 “안녕” 정도는 하고 지내는데, 예전에는 네팔에서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제 무리만 챙기는 편이었어요.

(29) 아린: 근데 지금도 계속 노력하느냐 하면… 예전보다는 덜 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신나서 엄청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생기면 좋고, 아니면 그냥 두자 이런 마음이에요.

교우관계 중에서 특히 ‘한국인 친구’에 대한 응답은 <표 12>와 같다.

〈표 12〉 한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한국인 친구	적거나 없음	한국인 친구를 못 사귀는 이유(내적)	위축감과 부끄러움
			처음보다 지금 친구 사귀기에 소극적임
			한국인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잘 안 됨
		한국인 친구를 못 사귀는 이유(외적)	문화 차이
			인간관계보다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친해지고 싶음	친해지려는 노력	많은 행사와 단체 활동 참여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기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노력
			친구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과 행동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들은 한국인 친구와 사귀고 싶어하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며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행사와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해 보기도 하고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 보기도 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의 기대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 니콜라이: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일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새로 온’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거든요. 친구 관계는, 국제 학생들끼리 엄청 가까워졌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 사이로 더 섞여서 지낼 줄 알았거든요. ‘나도 한국 친구들 무리 하나쯤 생기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편이어서, 그건 예상 못 했어요.

(31) 릴리: 한국 친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랑 지낼 때는, 제가 원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서 기대하는 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평소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제가 하는 ‘노력’이에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힘든 이유는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적인 이유로는 한국인 학생 앞에서 위축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친구 사귀기에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소통을 하려고 애써 보지만 잘 안되어서 친구 사귀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32) 아린: 친구 관계는, 이게 제일 슬픈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말 거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도요. 특히 한국 남학생들한테는 저도 모르겠는데 괜히 더 부끄럽고, 이상하게 더 사이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만큼 친구를 많이 만들진 못한 것 같아요.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원하던 만큼 ‘가깝게’ 친해지진 못했어요.

한국인 친구를 못 사귀는 외적 이유로는 문화 차이, 인간관계보다 학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들 수 있다.

(33) 자밀라: 저는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전통 속에서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해도, 여기 사람들과 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현재 한국의 학교 생활 중 또래 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요인으로는 부족한 상호작용, 친구 관계와 사회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이 없는 학교 생활을 꼽을 수 있다. 또래 관계와 관련된 희망 사항으로는 지금의 우정이 나중에까지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성격적 측면으로는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점이 불만족한 요인이다.

(34) 니콜라이: 저는 공부 말고 공부 밖의 것들 때문에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사회생활이요. 저는 원래 사교적이고 싶은데, 동시에 제가 진짜 사교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제가, 뭐랄까 “백업 친구(backup friend)”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이야기할 친구가 없을 때만 저한테 오는 느낌? 그런데 요즘은 그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35) 아린: 사람 관계도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 남학생이랑 이야기하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학기가 시작한 뒤로는 어쨌든 거의 말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을 잃는 건가?” 싶고,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유학을 온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우 관계’, ‘또래 관계’, ‘학창 시절의 친구’라는 성인 유학생과 다른 적응 요인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국에서의 친했던 친구들에게서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모국의 친구들은 이미 대학에 갔거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36) 디마스: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고요.

(37) 자밀라: 이제는 공통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별로 없어서요. 가끔 한 번씩 전화해서 “나 요즘 이렇게 지냈어” 업데이트하고, “너는 어때” 이런 정도예요. 그게 다예요. …(중략)… 그래도 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막 슬프진 않은데, 그냥 예전처럼 할 말이 많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 크고, 각자 일상이 있으니까요.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생활을 요약하면 힘든 학업, 교사, 또래 학생을 포함한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3. 나의 현재 모습

1) 긍정적인 모습

〈표 13〉 현재 나의 긍정적인 모습

학교에서의 내 모습	새로운 것을 배움
	국제적 친구 교류에 만족
	학교 생활 관리를 잘하고 있음
자기 인식	성장했음
	책임감 생김
	문제 해결 능력 좋아짐
	자기 결정을 높이 평가함
	스스로 해내서 자랑스러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 중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표현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와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이 학교 생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서 그런지 자신에게 한국은 특별한 장소이며 한국이 좋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보이기도 하고 한국에 적응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학교 밖의 세상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8) 릴리: 만족하는 건, 새로운 걸 정말 많이 배운다는 점이에요. 문화적인 것도 배우고, 연구 같은 것도 제 나라에서는 해 보지 못한 경험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성장했다고 느껴요.

한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했고 책임감이 생겼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한국에 오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유학 생활을 스스로 해내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39) 자밀라: 저는 15살에 여기 왔고, 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부모님 없이 왔어요. 그전에는 혼자 해외에 나가 본 적도 없었고, 공항도 세 번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 여기로 온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정말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제로에서 시작'했는데도 수업을 다 통과했구요.

2) 부정적인 모습

〈표 14〉 현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상황 인식	자유가 없음
	금전적 어려움
	대학교 걱정됨
	재미가 부족함
	학업 흥미 잃음 및 포기
	학교 생활이 별로 좋지 않음
불만족감	성적
	인간관계
	한국어 실력
불충분한 자기표현	성적 이야기 안 함
	튀지 않고 있고 싶음
	자신의 힘듦 말 못했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함
	갈등 상황에서 표현 안 함
	표현의 수위를 조절 못 함
	문화 차이로 표현을 자제함
	타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음
부정적 자기 인식	게으른 성격
	자신감 없음
	나답게 있지 못했음
부정적 감정	고립감
	우울함
	비관적
	비교하고 험담해서 불편함

연구 참여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자신은 현재 학교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고, 학교 안은 공부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입시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재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학업 흥미를 잃어버렸거나 높은 성적 받기를 포기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학교 생활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 역시 보였다. 이로 인해 고립감, 우울감, 비판적인 감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 자기 자신답게 있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원인은 주로 모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적인 분위기와 모국의 교육과정, 한국의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부족,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보인다.

(40) 니콜라이: 근데 불만족한 점은, 제가 지금 2학년이라 더 느끼는 건데, 규칙이 너무 통제적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 드라이기 반입 금지 규칙이 있는데, 걸으로는 화재 위험 때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이런 학교 규칙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시스템이 헛갈릴 때가 있어요.

(41) 아린: 요즘 제일 큰 고민은 대학 지원이에요. 사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엄마랑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부모님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는데 막 심각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장난 섞인 말다툼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은 대부분 돈 문제랑 연결돼요. 장학금이 없으면 해외에서 생활 유지가 어렵잖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성적과 인간 관계, 한국어 실력에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성적과 인간관계, 한국어 실력은 성공적인 학

교 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자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42) 니콜라이: 가장 큰 걱정은 성적이에요. 해결하려면, 당연히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학교에서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생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한국인 학생들은 학업과 성적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고 덩달아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학업과 성적에 민감해져서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튀지 않게 있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는 문화 차이로 인해서 자신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튀는 답변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인간관계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힘든 감정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학교나 학교 시스템, 선생님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모습에 대해 떠올리고 대답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에서 표현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화 차이로 인해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튀고 싶지 않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아린: 제 문화가 한국 문화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19급 농담 쪽으로 생각이 빨리 가는 편이에요. 제 나라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다 같이 이중 의미 농담, 약간 성인 농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뭘 하면 제가 혼자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가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웃어?”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저는 “아... 아니야, 그냥...” 이라고요.

(44) 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고,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칭찬을 해 준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게으르다거나 자신감이 없으며 좌절감, 우울감 등 비관적이고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5) 노아: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숙제가 작은 거라도 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46) 니콜라이: 저는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47) 아린: 근데 선생님은 제가 좀 비관적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말하기 대회 같은 건 거의 포기했잖아요. “저는 대회 나가기 싫어요”라고도 말했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뭘 해도 어차피 이길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중략) ...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제가 우울하거나 너무 슬플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침대에만 있고 싶고, 수업은 그냥 가기는 가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

고… 심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감정은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학년과 3학년이 되면, 학업도 또래 관계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48) 릴리: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감을 좀 잃어서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아, 난 못 할 것 같아”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도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4. 나의 희망 사항

1) 현재에 대해

〈표 15〉 현재에 대한 희망 사항

자기 자신	즐기고 싶음
	충분히 자고 싶음
	자신감 찾고 싶음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무언가에 헌신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쏟고 싶음
학업	좋은 성적
	휴학에 대한 이중 감정

연구 참여자들의 희망 사항을 현재와 미래와 나누어서 물어보았다. 고등학생인 현재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은 즐기고 자신감을 찾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과,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다. 학업 성적보다는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학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대신 그 일에 열정을 쏟고 싶은 모습도 보인다. 이를 통해 이들이 현재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임을 알 수 있고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진 이러한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9) 자밀라: 그래서 저는 “열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습관도요. 1학년 때는 기억나는 게, 제가 엄청 건강하지 않게 먹었고, 그게 에너지에도 안 좋아서 되게 처지고 느렸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잠도 좀 엉망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살고, 건강도 계속 좋게 유지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좋은 성적을 바란다는 내용을 조금씩 표현하였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학업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습이 힘들고 학습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싶기도 한데 휴학을 하면 모국의 친구들보다 대학교 입시가 늦은 상황에서 더욱더 늦어지는 것에 부담을 가져서 휴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0) 니콜라이: 휴학을 하면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고, 더 행복하고, 학교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K고등학교 템포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휴학을 하면 졸업이 1년 늦어지잖아요. 그게 저에겐 별로예요.

2) 미래에 대해

〈표 16〉 미래에 대한 희망 사항

희망 사항	독립적인 삶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음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빨리 대학 입학, 취직하여 가족 부양
	한국 학생처럼 학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음
	자신답게, 자신감 있게, 재미있게 살고 싶음
모르겠음	졸업 후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졸업 후에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빨리 대학교에 입학하고 취직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서 어른이 된 후에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유학 온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신답게, 자신감 있게,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응답을 통하여 한국의 학교 생활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이 잃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51) 니콜라이: “대학은 몇 살에 가도 늦지 않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 적절한 나이에 일을 시작하고, 빨리 부모님과 가족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다고 응답하면

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탐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2) 노아: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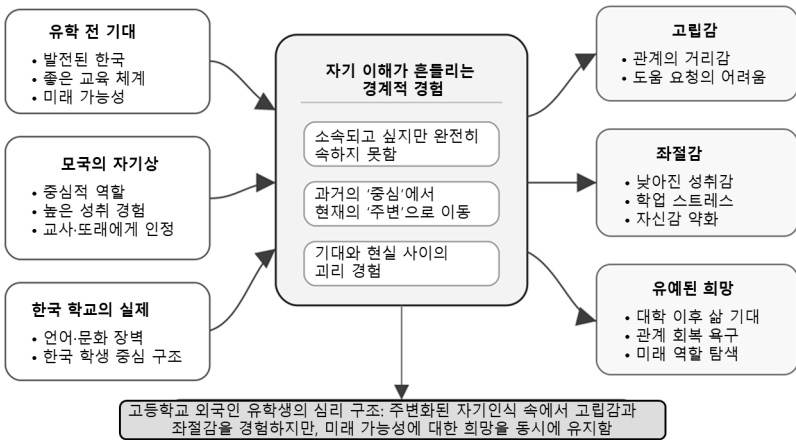
5.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 구조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의 현재 심리 구조는 유학 전 기대, 모국에서의 중심적 자기상, 한국 학교에서의 실제 경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들은 한국 학교 안에서 소속되고자 하지만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적 위치를 경험하며, 그 결과 고향의 친구들과 멀어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과도 사귀기 힘들고,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고립감과 친구관계, 학업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학 이후의 삶과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유예된 희망을 보이는 심리 구조를 보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학업 및 관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이후의 삶, 취업, 새로운 인간관계 등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변화 가능성과 연결하여 의미화하는 이러한 양상을 본 연구에서는 ‘유예된 희망’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이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적응 단계라기보다 일부 참여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래 지향적 현실 대응 양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학교의 교육과정, 학업 수행,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모국과 다른 환경을 경험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새로운 역할을 형성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감과 적응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그 어려움의 정도와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업

적응의 부담,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형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문제 등이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 적응의 심리 구조는 참여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단계라기보다, 개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험과 서로 다른 양상을 종합하여 구성한 해석적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대한 심리 구조를 구조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대한 심리 구조

IV. 결론

이상으로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유학하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해보았다. 이들은 학교 밖의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또래 관계와 학업에 대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 현재의 삶이 아닌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 등에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과는 다른 독특한 적응의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교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수용 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은 한국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제한된 활동 기회,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교사와 학생 간 문화적 거리감 등 학교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들에 대한 생활 정착 지원이나 언어 교육 지원 등으로 유학생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학 전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학 전후의 안내를 구체화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방식, 기숙사 생활, 교내 활동, 생활 규정, 한국어 사용 환경 등을 실제로 설명하고, 외국인 유학생 출신 선배나 국내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과 연결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국에서 형성한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자기 경험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낮은 학업 성취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교육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타인과의 비교보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성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신을 ‘부족한 유학생’이 아니라 여러 문화적 자원을 지닌 주체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넷째, 고립감과 좌절감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래 멘토링, 소그룹 활동, 공동 프로젝트, 기숙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어려움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담 교사와 상담 창구를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언어적·제도적 어려움을 고려한 학업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 과제 수행 방법, 평가 기준, 학습 자료 활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성적보다 학습 과정의 성장과 노력을 인정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교

사는 엄격한 평가가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이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소개한 경북, 전남, 부산, 강원 등 어떤 지역에서도 이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일반화되지 않는 개별적인 어려움이 따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앞서 우선 각각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어려움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26.07.15. 투고되었으며, 2026.08.14. 심사가 시작되어 2026.09.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미령·양평희(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학습 동기와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 연구—한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83, 371-399.
- 고미영(2013),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권보근·장인실(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51-73.
- 김미연(2026),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 『일본문화연구』 97, 141-168.
- 김주연·배선우(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 소속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지지 원과 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 489-509.
- 김진혁(2016), 「국내체류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정책의 나아갈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3), 51-80.
- 김현숙(2024), 「조선족·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 이주경험과 정체성」, 『한국이민정책학보』 1, 155-186.
- 김효숙(202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 195-208.
- 노초롱·김중수(2024),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분노 표현 교육 연구」, 『다문화 사회와 교육연구』 16, 75-112.
- 류루루·김정섭·김은지·기희경·김문정(2023),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주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한국어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 55-71.
- 박선우·정제영(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1, 223-246.
- 박정하(2025), 「이동하는 주체, 구성되는 감정—조기유학 귀국 청년의 감정 서사와 사회적 맥락—」, 『가족과 커뮤니티』 12, 135-162.
- 박종원(2011), 『질적 자료 분석: NVivo9 응용』, 서울: 형설출판사.
- 윤은숙(2025), 「청소년 조기유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질적 사례연구」, 『대한통합의학회지』 13(4), 155-164.
- 이성령·오영훈(2022),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경험 연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와 평화』 2, 30-55.
- 전수정·윤혜미(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조성남·이현주·주영주·김나영(2011), 『질적 연구 방법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조인식(2026),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유학생 유치와 아동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필요」, 『NARS 현안분석』 400, 1-16.
- 주월랑·강병현(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한국어능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 231-246.
- 최유진(201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인문사회 21』 4, 1119-1134.
- 최이진(2018), 「조기영어교육과 조기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학연구』 8, 207-213.
- 황윤미·방명애·김혜인(2018),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정서행동 특성」, 『특수교육논총』 2, 101-115.
- Seidman, I. (2006),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박혜준 외(역), 서울: 학지사, 200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노초롱·김중수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관계적 어려움의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산 소재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 절차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과 한국 문화, 교육 환경에 호감을 보였으나, 실제 학교 생활에서는 한국 학생 중심의 학교 시스템, 제한된 학교 밖 생활, 어려운 학업 수행, 교사와의 거리감,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모국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성취감을 경험했던 것과 달리, 한국 학교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며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지만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 등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자기 이해가 흔들리는 경계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은 한국어 교육이나 학업 보충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형성, 교사와의 소통, 학교 안팎의 문화 경험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미성년 유학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학교 적응, 질적 연구, 청소년 유학생, 소수자 경험

ABSTRACT

Qualitative Study of Schoo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a Korean High School

Noh Chorong · Kim Jungsu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a Korean high school. To address this gap, two rounds of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K High School in Busan.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cedures and organized into thematic categori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although the participants had positive perceptions of Korea,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 they encountered various challenges in their everyday school life. These include a school system centered on Korean students, limit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outside school, academic difficulties, emotional distance from teachers, and challenges in developing peer relationships. In particular, some participants who had enjoyed a strong sense of achievement and occupied central roles within their schools in their home countries perceived themselves as occupying more marginal positions in Korean schools, which was associated with feelings of isolation and frust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high schools undergo a process of liminality, in which their self-understanding and sense of identity are continuously negotiated in new educ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refore, support for these students should extend beyon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and academic assistance to include comprehensive measures that promote emotional well-being, peer relationship development,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meaningful cultural experiences, both inside and outside school.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high schools, school adjustment, qualitative research, adolescent international students, minority experience